■ 2022학년도 수능시험범위를 비롯한 수능 체제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2018. 9. 3.)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고교혁신을 위한 방안이 통째로 폐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 종합안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대입전형은 물론이고 공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연속분석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연속보도 ①]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로 유도'로 인한 문제점
[연속보도 ②]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비롯한 수능 체제의 문제점'
[연속보도 ③] 수능전형 확대를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을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
[연속보도 ④]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재고방안의 실효성 검증
[연속보도 ⑤] 2022 대입개편 종합안이 혁신학교/혁신교육 확산에 미치는 영향
[연속보도 ⑥] 학고교학점제 연기인가? 폐기인가?

선택과목 위주 시험범위+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로 결정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금),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함. 이 내용에는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를 포함하고 있음.

▲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시험범위는 올해부터 고교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폐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됨.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어: △필수(독서, 문학), △선택(택1):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필수(수학Ⅰ, 수학Ⅱ), △선택(택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영어: 영어Ⅰ, 영어Ⅱ
▪ 탐구: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구분 없이 택2(사회 9과목, 과학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필수1(성공적인직업생활)+선택1(5과목 중 택1)
▪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유지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목을 학생들이 필수로 배워야 할 내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성함. 즉 공통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을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사항 중 하나임.

▲ 2022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야 할 일반선택 과목이 대거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락함.

▲ 2022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②: 수능 시험범위+교육과정 필수단위 듣고나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2학년 1과목, 3학년 2~3 과목에 불과함.

▲ 2022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③: 교육부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탐구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함. 하지만 이 과목 모두 상대평가이므로 진로와 적성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소위 선택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수능 시험범위에 선택과목이 대폭 포함되는 이번 결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 중 하나인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수능 상대평가+수능전형 30%이상 확대' 결정까지 더해져 수업과 평가 혁신·혁신학교 확대 정책·고교학점제까지 연쇄적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 폐기되는 위기에 처함.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지난 8월 17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하 대입개편 종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수능 시험범위는 실제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정시 수능전형은 물론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사용되고 있어 수능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때문에 고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수능 시험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범위가 고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때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입개편 종합안을 통해 확정된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올해부터 고교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을 달성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림1] 수능의 성격 및 목적

자료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임.

올해부터 고교에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을 학생들이 필수로 배워야 할 내용은 공통과목으로 지정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교생은 1학년 공통+통합 과목을 수강한 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2·3학년이 되어서 배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예체능계열이나 어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공통 교과인 수학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이 되면 일반선택 과목인 '수Ⅰ', '수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중 자신의 관심과목인 '확률과 통계'를 배운 후 3학년이 되어서는 진로선택 과목인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중 '실용 수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연계열이나 이공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는 1학년에 수학을 듣고 2학년이 되면 일반선택 과목 중 '수Ⅰ', '수Ⅱ'를 듣고 3학년이 되어서는 '미적분'을 듣거나 진로선택 과목인 '기하'를 추가로 더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수능 시험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공통과목 위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수능 시험범위에 일반선택·진로선택 과목이 포함될 경우 해당 과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 2022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야 할 일반선택 과목이 대거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락함.

그런데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한국사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학의 경우 공통 시

험범위가 '수학Ⅰ', '수학Ⅱ'로 결정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체능 계열과 어문 계열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1학년 때 '수학'을 듣고 2학년과 3학년에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을 듣고 국어, 영어, 예체능 교과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더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그림 2] 2015 개정교육과정 과목 중 2022학년도 수능시험범위 과목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Ⅰ,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Ⅱ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Ⅰ 일본어Ⅰ 프랑스어Ⅰ 러시아어Ⅰ 스페인어Ⅰ 아랍어Ⅰ 중국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일본어Ⅱ 프랑스어Ⅱ 러시아어Ⅱ 스페인어Ⅱ 아랍어Ⅱ 중국어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빨간색으로 표시한 과목이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함.

■ 2022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②: 수능 시험범위+교육과정 필수단위 듣고나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2학년 1과목, 3학년 2~3 과목에 불과함.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취지 다른 교과의 경우도 과목 선택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실제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1 때는 학교가 지정한 공통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는 시기는 고2부터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수능 시험범위 시안은 2학년부터 주어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심하게 제한합니다. 그림 3의 2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은 '언어와 매체(6단위)', '문학(6단위)', '수학 I (6단위)', '수학Ⅱ(6단위)', '영어 I (6단위)', 사회와 과학에서 구분 없이 2과목(각 6단위)입니다. 모두 7과목을 6단위씩으로 총 42단위입니다. 2학년의 총 교과 이수단위인 60단위에서 42단위를 수능 시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18단위에서 학교가 체육교과 필수로 편성한 '운동과건강'(6단위)을 듣고 제2외국어(6단위)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면 60단위 54단위가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고작 1과목에 불과합니다.

[그림 3] 실제 고교의 1·2학년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2018학년도 입학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과목유형	세부교과목	기준단위	운영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이수단위	필수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직업위탁과정 1학기	직업위탁과정 2학기			
학교지정	기초	국어	공통	국어	8	8	4	4								8	10
		수학	공통	수학	8	8	4	4								8	10
		영어	공통	영어	8	8	4	4								8	10
		한국사	공통	한국사	6	8	4	4								8	6
	탐구	사회	공통	통합사회	8	8	4	4								8	10
		과학	공통	통합과학	8	8	4	4								10	12
			공통	과학탐구실험	2	2	1	1									
	체육·예술	체육	일반	체육	5	4	2	2								16 (직업위탁과정 14)	10
			일반	운동과 건강	5	6			3	3							
			진로	스포츠 생활	5	6					3	3	2	2			
	생활·교양	기술·가정	일반	기술·가정	5	6	3	3								6	16
2학년선택	기초	국어	일반	언어와 매체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일반	문학	5	6											
		수학	일반	수학 I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일반	수학Ⅱ	5	6											
			진로	기하	5	6											
		영어	일반	영어 회화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일반	영어 I	5	6											
	탐구	사회	일반	세계지리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일반	세계사	5	6											
			일반	경제	5	6											
			일반	정치와 법	5	6											
			일반	윤리와 사상	5	6											
		과학	일반	물리학I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일반	화학I	5	6											
			일반	생명과학I	5	6											
			일반	지구과학I	5	6											
	체육·예술	예술	일반	음악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10
			일반	미술	5	6											
	생활·교양	기술·가정	일반	정보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제2외국어/한문	일반	일본어 I	5	6											
			일반	중국어 I	5	6											

3학년이 되어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6단위)', '독서(6단위)', '미적분(6단위)'과 '확률과 통계(6단위)' 중 1과목, '영어Ⅱ(6단위)'를 선택하게 된다면 3학년 총 교과이수단위 60단위 중 24단위의 수능 시험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남은 단위에서 예체능에서 2과목(12단위) 생활·교양 교과에서 1과목(6단위)를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 예술 교과의 필수 이수단위를 각 10단위, 생활·교양의 필수 이수단위를 16단위로 정하고 있음. 이 학교의 경우 1,2학년에서 체육을 10단위, 생활·교양 교과에서 기술가정(6단위)을 필수로 편성했으므로 2학년에 음악/미술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음악/미술 10단위 이상, 생활·교양 교과에서 1과목을 이수해야 함.) 그렇다면 총 42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남은 18단위 중에서 학생이 탐구(6단위) 과목을 3학년 과목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60 단위 중 총 48단위를 할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단위는 12단위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2과목에 불과합니다. 즉 수능 시험범위와 교육과정 상 필수 이수단위를 듣고나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두세 과목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림 4] 실제 고교의 3학년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3학년선택	기초	국어	일반	화법과 작문	5	6					21이하 (택7이하)	21이하 (택7이하)				0이상		
			일반	독서	5	6												
			진로	실용 국어	5	6												
		수학	일반	미적분	5	6												
			일반	확률과 통계	5	6												
			진로	경제수학	5	6												
		영어	일반	영어Ⅱ	5	6												
			일반	영어 독해와 작문	5	6												
			진로	실용 영어	5	6												
	탐구	사회	일반	한국지리	5	6												
			일반	사회·문화	5	6												
			일반	생활과 윤리	5	6												
			진로	사회문제 탐구	5	6												
		과학	진로	물리학Ⅱ	5	6												
			진로	화학Ⅱ	5	6												
			진로	생명과학Ⅱ	5	6												
			진로	지구과학Ⅱ	5	6												
	체육·예술	예술	진로	음악 연주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진로	미술 창작	5	6												
	생활·교양	제2외국어/한문	진로	일본어Ⅱ	5	6					3이상 (택1이상)	3이상 (택1이상)				6이상		
			진로	중국어Ⅱ	5	6												
		교양	일반	논리학	5	6												
			일반	환경	5	6												
			일반	실용 경제	5	6												
교과 이수단위 소계							30	30	30	30	30	30	2	2		180	94	
창의적 체험활동					24	24	4	4	4	4	4	4	4	4		24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4	34	34	34	34	34	6	6		204		
학기당 과목수							7(2)	7(2)	6+(4-)	6+(4-)	0+(10-)	0+(10-)						
학년별 총 이수단위							68		68		68							

■ 2022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③: 교육부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역에 선택과목을 추가하고 탐구는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함. 하지만 이 과목 모두 상대평가이므로 진로와 적성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소위 선택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임.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공통+선택형 수능으로 바뀝니다. 국어의 경우 '독서', '문학'이 공통 시험범위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게 됩니다.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 시험범위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탐구영역도 문과의 경우 사회탐구 중 2과목, 이과의 경우 과학탐구 중 2과목을 선택했던 방식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 2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학생이 선택한다는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과목 모두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보다는 점수를 따기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선택 왜곡현상이 지금보다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수능의 경우도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의 경우는 선택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소위 ‘묻지마 아랍어 선택’은 해소 가능성이 높지만 이과 같은 현상이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수학의 경우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로 대동단결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실정입니다. 즉 50점 만점에서 30점 정도만 맞아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고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아랍어로 쏠리는 현상처럼 학생들은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이 점수를 따기 쉬운가를 판단해 수능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이번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에서 교육부가 설명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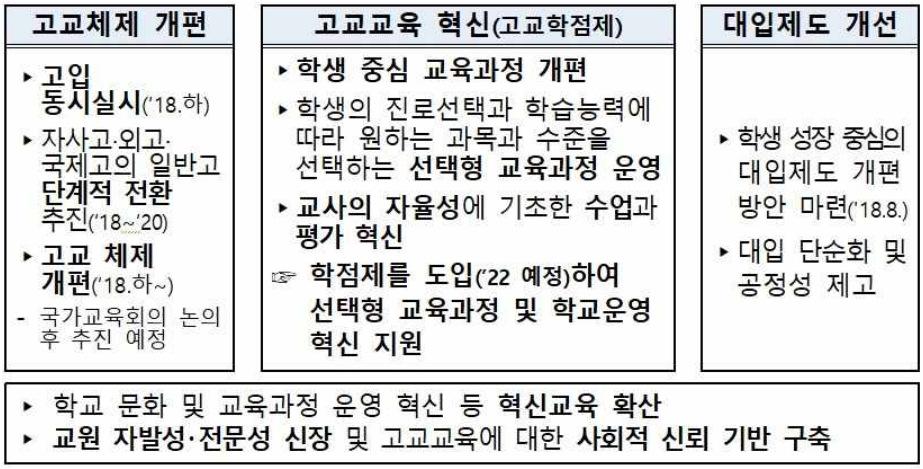
■ 수능 시험범위에 선택과목이 대폭 포함되는 이번 결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 중 하나인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졌으며, ‘수능 상대평가+수능전형 30%이상 확대’ 결정까지 더해져 수업과 평가 혁신·혁신학교 확대 정책·고교학점제까지 연쇄적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 폐기되는 위기에 처함.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에 선택 과목을 대폭 포함시킨 결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사항 중 하나인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수능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능체제와 대입제도가 결정되어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나머지 주요 핵심사항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폐기되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확대 정책과 고교학점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대부분이 연쇄적으로 폐기되는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혁신학교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자 각 시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범위를 비롯한 수능체제와 대입제도가 수업과 평가 혁신과 거리가 먼 지식암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교육 혁신은 자연스럽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교에서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고교학점제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학

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수업과 평가 혁신과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2022년에 갑자기 고교학점제라는 공교육 혁신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림 5]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고교교육 혁신 과제 간 관계도



- 자료출처: 교육부(2017년 11월 발표)

고교학점제의 폐기는 독립적인 정책 하나가 실행되지 않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물론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까지 제동이 걸리는 일입니다. 2017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를 보면 고교혁신의 중추적인 과제로서의 역할을 고교학점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을 통해 약속한 대부분의 사항을 이 정책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의 교육과정, 즉 수업과 평가를 학생중심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까지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교육 혁신을 위한 큰 그림으로서의 고교학점제가 폐기된다는 것은 사실 상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 대부분 폐기되는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 9.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